

관람객 증가한 국립중앙박물관, 광복절 맞아 더욱 붐벼 [뉴스시스Pic]

등록 2025.08.15 15:51:56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. 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최근 '케이팝 데몬 헌터스' 등 K-콘텐츠의 흥행과 여름방학 극성수기가 맞물리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가 크게 증가했다.

지난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난달(7월1~30일 집계) 관람객 수는 69만4552명(내국인 66만8792, 외국인2만5760명)이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8868명의 배를 넘는 수치다. 7월 말까지 누적 관람객수는 341만875명으로, 전년 동기 대비 72% 증가했다.

이에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"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발걸음에 감사드린다"며 "박물관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람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"고 밝혔다.

박물관은 박물관 진입 차량 급증으로 주차장과 주변 도로 혼잡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 안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. 또 박물관 입구와 진입도로, 야외주차장 등 혼잡도를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.



[서울=뉴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이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. 2025.08.15.
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. 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데니 태극기를 살펴보고 있다.

국내에 남아 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다.
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데니 태극기를 살펴보고 있다.

국내에 남아 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다.
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.

국내에 남아 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다.
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 공식 굿즈 매장 '뿔즈샵'이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. 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 공식 굿즈 매장 '뿔즈샵'에서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. 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 공식 굿즈 매장 '뿔즈샵'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. 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

[서울=뉴스시스] 이영환 기자 =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 공식 굿즈 매장 '뭇즈샵'에서 제품 품절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. 2025.08.15. 20hwan@newsis.com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20hwa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